WHITE CUBE 이토록 진보한 예술가의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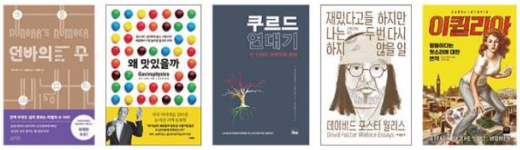
May, 2018 I 주현욱 피처 어시스턴트 에디터

JOURNAL

THE READER

가족들 낮잠 잘 때 읽기 좋은 5월의 신간.

에디터 **이재림**



던바의 수
로빈 던바 | 아르테

옥스퍼드대학교 인지 및 진화인류학 연구소장이었던 로빈 던바가 과학잡지와 일간지에 기고했던 글을 모았다. 인류 조상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성 선택론과 같은 진화론의 핵심 주제를 알기 쉽게 서술했다. 또 던바의 법칙, 3배수의 법칙, 사회적 뇌 가설 등 그의 독창적인 연구 성과도 생생한 사례와 함께 보여준다.

왜 맛있을까
찰스 스펜스 | 어크로스

세계 정상급 셰프들과 글로벌 요식업계가 사랑하는 심리학자인 찰스 스펜서. 그는 이 책에서 음식의 색깔과 냄새는 물론이고 식기의 무게와 질감, 레스토랑의 음악이나 셰프의 플레이팅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가 더 맛있고 즐거우며, 더 건강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식사를 경험하게 돕는다. 음식판 괴짜 경제학인 셈이다.

쿠르드 연대기
제라르 살리앙, 소피 무세 | 한울

쿠르드족은 왜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는가? 저자는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최전방의 병사부터 쿠르드 지도자까지 직접 접촉하며 축적한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쿠르드족이 거쳐온 분쟁과 그들의 독립을 놓고 맞물린 각국의 이해관계를 일목요연하게 밝힌다. 또한 오늘날 한계에 맞닥뜨린 아랍 세계의 변화를 촉구한다.

재밌다고들 하지만 나는 두번 다시 하지 않을 일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 | 바다출판사

천재적 재능으로 미국 현대문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지만 46세에 자살한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 그는 문학 비평가 기질로 주목받았고 문예창작을 가르치는 일에 열의를 쏟았다. 미국적 소비주의, 대중문화, 문학, 스포츠, 정치 등을 다룬 그가 집필한 세 권의 산문집에서 9편을 골라 엮었다.

이퀄리아
캐서린 메이어 | 와이즈베리

〈타임〉의 유럽 총괄 편집장까지 지낸 캐서린 메이어의 소설. 아이슬란드의 사례를 바탕으로 완벽한 성평등이 구현된 가상 국가 이퀄리아의 모습을 그린다. 언론인과 정치인의 삶을 모두 경험한 저자는 여성 참정권 역사에서 시작해 가부장제 아래서 여전히 고통받는 여성과 남성의 모습을 조명한다.

WHITE CUBE

이토록 진보한 예술가의 도구.

주현욱(피처 어시스턴트 에디터)

걸출한 인물 곁에는 언제나 그의 '오른팔'이 함께 해왔다.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 수트를 만들 때 곁을 지킨 건 AI 로봇 팔이다. 슈퍼히어로의 비밀 병기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도 부지런히 좁다란 강 사이에 다리를 짓고 있는 두 대의 로봇 팔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다. 정체는 바로 MX3D 프린터. 대규모 다축 프린팅 기술을 사용해 어떤 지지대도 필요 없이 강철과 알루미늄을 대규모로 출력할 수 있다. 이 유능한 로봇을 도구 삼아 12.5m의 아름다운 다리를 짓고 있는 '요리스 라만 랩'의 수장 요리스 라만은 라디에이터, 의자, 테이블 작업으로 유명한 네덜란드 디자이너다. 그럼에도 그의 작업실을 스튜디오가 아닌 '랩(LAB)'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가 과학자, 엔지니어, 프로그래머와 함께 작업하기 때문이다. 최근 4년간 3D 프린팅 기술과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으로 만든 그의 신작을 소개하는 〈요리스 라만 랩: Gradients〉가 5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린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그의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을 만드는 생산 과정을 담은 영상과 스케치, 렌더링도 함께 만날 수 있다. 3D 프린터를 사용해 만든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용 모양 벤치, 형태와 크기가 서로 다른 수많은 '셀(cell)'로 구성된 알루미늄 의자는 당장이라도 살아 움직일 것만 같다.

Courtesy Joris Laarman Lab /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